

hey will spring up like grass in a meadow, like poplar trees by flowing streams.(Isaiah 44:4)

2017 04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누가복음 · 요한복음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They will spring up like grass in a meadow,
like poplar trees by flowing streams.(Isaiah 44:4)

충현의 만나

CONTENTS

- 2 4월 일정표
- 4 매일묵상 사용안내
- 6 기도제목표
- 7 매일묵상 Q.T.
- 69 영어본문말씀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04 2017 APRIL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전교인
2 전교인	3 전교인	4 10,18교구	5 2,8교구	6 11,17교구	7 3,9교구	8 전교인
9 전교인 종려주일	10 전교인	11 전교인	12 전교인	13 전교인	14 전교인 성금요일 (제3차 성찬식)	15 전교인
16 전교인 부활주일 (부활주일 특별찬양예배)	17 전교인	18 16교구	19 14교구	20 7교구	21 2교구	22 전교인
23 전교인 장애인주일	24 전교인	25 11교구	26 1교구	27 10교구	28 3교구	29 전교인
30 전교인 제2차 학습·세례식						

교회 주요 일정

4월 9일(주일)	종려주일	4월 16일(주일)	부활주일(부활주일 특별찬양예배)
4월 10일(월)~14일(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4월 23일(주일)	장애인주일
4월 14일(금)	성금요일(제3차 성찬식)	4월 30일(주일)	제2차 학습·세례식

4월, 개인 전도 계획

‘충현의 만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도록 매달 발행되는 Q.T.(Quiet Time) 소책자이다. ‘충현의 만나’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새벽기도회의 본문을 기준으로 ‘본문 해설’과 ‘묵상 질문’, ‘적용 질문’의 형태로 구성된 ‘충현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1. 첫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목을 정하라

우선 본문을 읽은 후,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각 문단의 핵심단어나 구절을 찾아 표시하고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다. 충현의 만나 매일묵상은 2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상단의 날

짜 옆에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달아 놓았다.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묵상하는 중에 본문의 주제를 더 적확(的確)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보는 것도 말씀의 깊이 묵상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본문의 배경을 살피라

본문을 쓴 인간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왜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정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한 책이나, 성경 사전, 혹은 도서관에서 주석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피하는 게 좋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단 교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는 해설을 퍼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 하라(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2.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

말씀을 묵상한 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내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붙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 보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 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총현교회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교회와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소서.
- ③ 어떠한 음부의 권세와 이단 세력도 흔들지 못하는 시온 성과 같은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④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및 해당 교구 전도, 동역교회 전도 지원 사역에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동참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에 온 성도가 동참하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 ⑥ 각 교구와 부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 ⑦ 부임하실 담임목사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부임의 과정과 절차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소서.
- ⑧ 장로·안수집사·권사 피택자들이 교육을 통하여 복음으로 온전히 깨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⑨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가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남북통일이 복음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⑩ 믿음과 사랑으로 작정한 태신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소서.

매일묵상
Q.T.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본문 누가복음 23:26~43 찬송가 150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을 어깨에 지고 사형이 집행될 언덕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그들이 애통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슬피 우는 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비참한 미래를 위해 눈물을 아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갈보리까지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갔습니다. 모두가 죽음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곳 이름은 적절하게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조소하고 희롱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하시도록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셨으나, 더 명백한 이유는 그들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 고소자나 로마인 집행자나 모두 자신들이 하는 행동의 중대성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용서의 사랑을 나타내신 주님을 본받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 기도 제목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²⁶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²⁷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²⁸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²⁹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³⁰ 그 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³¹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³²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³³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³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³⁵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³⁶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³⁷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³⁸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³⁹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⁴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⁴¹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⁴²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⁴³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어둠이 세 시간 동안 땅을 다스렸습니다. 이 어둠이 시작된 때는 하루 중 가장 밝은 때인 정오였습니다. 어둠은 예루살렘의 십자가만 덮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온 땅을, 더 나은 표현으로는 온 지구를 뒤덮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세상은 어둠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강도들과 백부장과 무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멀리 서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 보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장사하기 원했습니다. 요셉은 당시에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장사를 치르기 위해 시신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는 급히 치러져야 했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각 가정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 옷과 음식을 준비해두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어둠의 세력이 온 땅을 장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밝은 날이 다가옵니다. 부활의 영광을 아는 자로 어두운 세상에 빛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 기도 제목

어두운 이 세상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⁴⁴ 때가 제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며 ⁴⁵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⁴⁶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⁴⁷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⁴⁸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⁴⁹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⁵⁰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⁵¹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⁵²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⁵³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 ⁵⁴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⁵⁵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⁵⁶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세상에서 최악의 안식일이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해가 지면서 새 날, 한 주의 첫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나귀가 끌어야 했을 멧돌 같은 큰 돌을 옮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들은 곧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그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그분의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십자가 사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들은 확실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에 적절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파하였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파하는 자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¹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²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³들어가니 주 예수께서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⁴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⁵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⁶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⁷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⁸그들이 예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⁹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¹⁰(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¹²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사람과 합류하셨습니다. 그가 조용히 그들과 함께 걷고 있을 때,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낯선 사람과 예루살렘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친히 성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의도와 표현을 통해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고 가르치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으며 배신당하고 고난받으며 죽고 영광에 들어가실 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일은 뜻밖의 새로운 무엇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줄곧 이 모든 것을 위해 이스라엘을 준비시켜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육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읽고 거기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더 풍성히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성경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풍성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¹³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집으로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¹⁴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¹⁵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익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¹⁶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¹⁷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¹⁸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¹⁹ 이르시되 무슨 일이나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²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²¹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²²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²³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²⁴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²⁵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²⁶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²⁷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²⁸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²⁹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³⁰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³¹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³²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³³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³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³⁵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5

수요일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본문 누가복음 24:36~53 찬송가 410장

>>> 본문 해설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몸의 특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나고 사라질 수 있으셨습니다. 뜻밖의 출현과 함께 예수님은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의 흔한 인사말 샬롬으로 인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열어 다시 수난 예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흡수했었다면 그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배운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지 않았습다. 성경은 그들이 기대하는 식으로 메시아를 그리지 않았습다.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될 수 있었습다. 제자들은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때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경험하신 모든 것, 특히 그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성경말씀을 통해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³⁶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³⁷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³⁸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³⁹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⁴⁰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⁴¹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⁴²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⁴³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⁴⁴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⁴⁵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⁴⁶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⁴⁷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⁴⁸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⁴⁹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⁵⁰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⁵¹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히틀로 올려지시니] ⁵²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⁵³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라

본문 요한복음 1:1~8 찬송가 84장

» 본문 해설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다른 여러 가지 가능한 표현들 대신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칭할 때 종종 같은 표현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신학적인 가르침은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이전의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린 양의 계시는 생명의 계시였습니다.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빛과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 창조주께서는 인류에게 생명과 빛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에서 빛을,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 분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과 빛을 풍성히 공급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²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³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⁵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⁶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⁷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⁸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중에 성막을 기억하십니까? 성막은 율법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처소이며, 제사의 근원이며, 제사의 단이며, 예배의 중심인 곳입니다. 이제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유일하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포함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결합된 표현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성품을 하나로 완벽하게 묶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그 분께 나아가서 그 은혜와 그 진리를 풍성히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은혜와 진리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⁹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¹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¹¹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¹²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¹³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¹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¹⁵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¹⁶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¹⁷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¹⁸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메시아가 곧 오신다”고 외치며 광야를 바삐 오르락내리락하는 세례 요한의 거칠게 보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생활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은 사람들의 신임을 받을 만한 랍비의 세련된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에 대한 공식적인 종교 사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질문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광야의 거친 경험을 몸에 지니고 있는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의 사명을 선언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왕의 오심을 미리 예고하며 준비하는 자로서 말라기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였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도록 하게 하옵소서.

¹⁹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²⁰ 요한이 드
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
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²¹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
하되 아니라 ²²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²³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
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

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²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²⁵ 또 물어 이르되 네
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
느냐 ²⁶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²⁷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
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
하겠노라 하더라 ²⁸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
던 곳 요단 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
이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본문 요한복음 1:29~34 찬송가 265장

» 본문 해설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표현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순결함, 자원적인 희생, 대속적 죽음, 유효한 순종, 구속의 능력 등의 개념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대속적 죽음,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초청 그리고 죄의 용서에 대한 강조는 복음의 심장과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게 될 때까지는 자기의 사촌인 그분께서 메시아이신 사실을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요한의 발표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세례시에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확실히 알려 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죄인인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 그 은혜만은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²⁹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
 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³⁰ 내가 전에 말하기
 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³¹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
 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³² 요
 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³³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
 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³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
 라 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 그들이 먹고 있던 떡을 취하셔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 떡은 당신의 몸을 상징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라는 표현은 그들이 음식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던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사례라는 표현은 감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잔의 의미에 대해 더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옛 언약을 완성시키시며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동물을 가지고 드리던 제사는 반복해서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희생의 제사를 통해 새 언약은 단번에 영원히 완성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믿는 사람들의 죄를 제거해주며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구원은 더 이상 구약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주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새 언약에 참여하여 그 언약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주가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더욱 풍성히 누리도록 하옵소서.

²²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²³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²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²⁵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²⁶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 산으로 가니라 ²⁷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²⁸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²⁹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³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³¹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이자 가장 힘겨운 시험을 앞두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광야의 시험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막 1:12~13), 이제 겟세마네라는 또 다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에덴 동산에서의 첫 아담의 불순종과는 달리 순종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몸서리 칠 정도로 두려워하고 고민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할 육신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고 고통을 줄일 수 없는 근본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나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죽음이고,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 버림받는 저주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괴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드린 솔직한 기도였지만, 고난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순종하고 싶은 열망에서 드린 기도였으며, 자기 운명에 대한 원망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히 5:7).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신 후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는 날, 그들도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는 권면을 거듭 듣고도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수난 예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으며, 그 수난의 길이 자신들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가신 길이 제자인 나의 길이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 복음을 믿을 때 늘 깨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잘 따라 걸을 수 있게 날마다 새 힘으로 더하여 주소서.

³²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³³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³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고 ³⁵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³⁶ 이르시되 아버지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³⁷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

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³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³⁹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⁴⁰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⁴¹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⁴²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결박당한 채 안나스에게서 가야바에게 넘겨지신 주님은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지십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형 판결권이 없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새벽부터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 율법에 따라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들을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잔치를 앞두고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방인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28절).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피해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로마를 대적한 선동죄로 고소하자(눅 23:1~2) 어쩔 수 없이 심문을 시작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물음에 예수님은 자신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재건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는 힘과 권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37절). 결국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 하지만, 유대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넘겨줍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돌아서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있습니까? 사탄이 내 마음을 무디게 하여 진리에 어두워지지 않도록(고후 4:4) 말씀에 깨어 기도합시다.

»» 기도 제목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의 왕국을 상속해 주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²⁸ 그들이 예수를 가버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²⁹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³⁰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³¹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³²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³³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³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³⁵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³⁶ 예수께서 대답하

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³⁷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³⁸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나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³⁹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⁴⁰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유대인들의 요구에 굴복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자 곧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17~18절). 요한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졌다는 공관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끝까지 수난과 죽음을 홀로 감당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즉 주님이 왕으로서 자기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여겨,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그 길을 가신 것을 보여줍니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드러내시던 주님이(요 18:5~6, 8)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온 천하에 선포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들려 올리자심은 예수님의 수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영광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3개 국어로 써 붙여 예루살렘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진정한 유대인의 왕, 메시아이심을 온 천하 만민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군인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십자가 아래 다른 한편에는, 그 군인들과 대조적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지키는 신실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슬퍼하는 어머니를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십자가가 주는 엄청난 은혜는 알아보지 못하고 옷가지들 서로 취하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군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 기도 제목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기신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¹⁷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¹⁸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¹⁹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²⁰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²¹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²²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²³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것에 나눠 각각

한 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²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려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²⁵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²⁶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²⁷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몸소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제저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이고 부활이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는 이미 승리이고 부활은 승리의 열매이며, 성령강림은 그 승리의 적용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십자가 위에 시신을 방치하여 안식일과 유월절이 터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신 21:22~23). 그래서 죄인들의 죽음을 재촉하려고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후라서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속죄를 위한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출 12:46; 시 34:20).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한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흘러나왔는데, 이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34~37절).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흘리셔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생수의 시대를 예고하셨습니다. 피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며(요 6:53), 물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수(요 4:14), 우리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요 7:38), 곧 성령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날마다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의식의 거룩을 범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작은 거룩을 지키려고 주님을 버리는 큰 거룩을 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과 만나는 외면한 채 작은 거룩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습니까?

>>> 기도 제목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다 이루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²⁸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²⁹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³⁰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³¹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³²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³³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³⁴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³⁵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³⁶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³⁷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제자들이 모두 도망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여 준비해둔 자신의 무덤에 장사합니다. 빌라도가 예수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요셉에게 이 요구는 불온한 인물 예수와 같은 부류로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을 불사한 용기있는 요구였습니다.

또 갈릴리에서 무덤까지 예수님을 한결같이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보며 끝까지 자신들의 할 일을 준비하기 위해 시신에 부을 향품과 향유를 예비합니다. 말로만 호언장담하며 높은 자리만 탐내던 제자들은 온데 간데 없지만, 주목받지 않았던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킵니다. 결국 요셉의 담대한 헌신은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사 53:9)가 되었고, 여자들의 헌신은 부활을 목격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말없이 주를 따르며, 주목받지 못해도 변함없이 주를 섬기는 사람, 그가 참된 제자입니다.

>>> 기도 제목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숨기지 않고 변함없이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⁵⁰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⁵¹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⁵²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⁵³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

에 넣어 두니 ⁵⁴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⁵⁵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⁵⁶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주의 천사가 이제는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려고 무덤을 방문했지만(막 16:1), 지금 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빈 무덤과 주의 천사가 전하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덤의 돌이 결코 주님의 부활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삼 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에 불과했던 갈릴리를 복음 사역의 주무대로 삼아 활동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실패를 회복해주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인들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여인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도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며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 소식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던 여자 증인들을 통해 예수님은 부활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들이야말로 끝까지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분이나 지위를 따지지 않으시고 다만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자를 불러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이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전합니다.

»» 기도 제목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갖고 모든 어둠의 세력 앞에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전하게 하소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²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³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 ⁵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하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⁶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⁷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⁸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⁹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¹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 목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 주시는 새로운 시대가 어떠한지를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본문에서 '사흘째 되던 날'은 유대인에게 제7일이 되는 안식일이며(요 1:29의 '이튿날'을 기점), 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리키는 제3일을 암시합니다. 즉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에서 장차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인생의 결핍과 곤궁을 즐거움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는 '돌 항아리 여섯'은 요한이 유대교의 무력함을 보여주려고 7에서 1이 부족한 숫자를 사용한 것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 새 창조의 무한한 부요함을 드러내실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인생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오셔서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는 유대교 시대를 끝내시고, 이제 우리 삶을 혼인잔치 집으로 바꾸시는 새 시대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리아, 하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 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을 모두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기도 제목

세상살이에 곤비한 영혼을 새 포도주의 즐거움으로 만족케 하신 구원을 노래하며 전하게 하소서.

¹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와 그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² 예수와 그 제
 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³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와 그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
 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⁵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⁶ 거
 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⁷ 예수께서 그들
 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⁸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⁹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
 장이 신랑을 불러 ¹⁰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
 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
 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¹¹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
 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
 이 그를 믿으니라 ¹²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
 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
 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곳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유대교 성전을 파괴하고 새 성전을 일으켜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먼 곳에서 오는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사에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상행위를 성전 안에서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분노하셨습니다. 타락한 성전 제사를 보시고, '채찍을 만드시고', '내쫓으시고', '쏟으시며', '엎으시고',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충만하셨습니다(시 69:9). 그리고 주님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통해 성전이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헐리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직접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선언하시며, 이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새 성전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많았으나 친히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결국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장치로 변질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예수님의 거룩한 열정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표적만을 구했지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 기도 제목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성전의 거룩한 영광을 회복하시려는 주님의 총명한 열정을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¹³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¹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¹⁵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¹⁶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¹⁷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¹⁸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¹⁹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²⁰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²¹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²²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²³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²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²⁵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유대교 율법에 정통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 얻는 진리를 구합니다. 그러나 유대교를 대표할 수 있는 니고데모지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도 역시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인생의 필요를 단번에 아시며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구원에 불안해하는 것을 아시고 답을 해주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 난다'는 의미로, 땅에서 태어나는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출생이 아니라 '물 곧 성령'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 같이 흘려뱉힌 사람일지라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땅의 사람에게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성경을 많이 알든지 모르든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탄생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요 1:13).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 힘으로 의미 있게 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한다면 결국 육의 끝인 심판과 사망에 처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일하십니다. 바람(프뉴마)이 율하는 대로 불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프뉴마)께서도 주권적으로 중생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아무런 자격 없는 내게 성령이 다가오셔서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 기도 제목

오직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¹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²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 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 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³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 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

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 사옵나이까 ⁵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 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⁶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⁷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 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⁸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 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 람도 다 그러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인정받은 니고데모조차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세상의 지식처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서 나는 지식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인자의 내려 오심과 올라가심, 높이들리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등의 하늘 일을 자세히 설명해주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방도로 광야에서 모세에게 구리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을 살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어 올리셔서 그분을 바라볼 때만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셨고, 아들은 위로 들려 올려지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힘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온 인류에 미친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유와 행복을 누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실제로는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이 이미 정죄 받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을 사랑하여 그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에는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 빛과 사귀기를 기뻐하여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습니까?

»» 기도 제목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않던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9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의 변두리 지역으로 옮겨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22절). 그곳에서 멀지 않은 애논에서 요한 역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23절).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경쟁심이 보이니 요한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요(28절), 자신은 “신랑의 친구”(29절)라고 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30절)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분명한 자기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다고 인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31~33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34절).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고(35절),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36절).

우리의 임무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은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바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²²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²³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²⁴ 요한이 아직 욕에 감하지 아니하였더라 ²⁵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²⁶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²⁷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²⁸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²⁹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

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³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³¹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³²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³³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³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³⁵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³⁶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요단 강 부근 지역에 머물렀던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3절). 이때 예수님은 유대 지역과 갈릴리 사이에 놓여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4절).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않은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하였고, 그래서 유대인들 중 다수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여행할 때,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도 사마리아를 우회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길을 택하셨습니다(4절). 예수님은 제6시, 즉 정오쯤 되어 여행에 피곤하여 수가 성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6절). 그 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7절). 다른 여인들은 뜨거운 햇빛을 피해 아침 일찍 혹은 저녁 해질 무렵에 나오는데 하루 중 가장 뜨거운 때인, 정오에 나오는 이 여인은 분명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자 그녀는 깜짝 놀라 왜 자신에게 물을 달라느냐고 반문했습니다(9절). 예수님은 대답하시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며 물을 달라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오히려 자신에게 생수를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10절). 그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자연적인 물로 오해했습니다(11절).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물은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13~14절).

이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입니다(요 7:37~39).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갈증을 일시적으로만 만족시킬 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지나온 인생이 그것을 증명하며 우리의 인생 또한 뒤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의 우물물로 완전한 만족을 얻고자 하면 할수록 실망과 낙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곧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 기도 제목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¹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²(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³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⁵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⁶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⁷ 사마리아 여자인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⁸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⁹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

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¹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¹¹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¹²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¹³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¹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여인은 예수님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물을 달라고 구하였습니다(15절).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남편으로 바꾸셨습니다. 여인은 생수의 필요성을 단순한 갈증을 해소하는 일차적인 것으로 이해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필요가 더 깊고 세상의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갈망임을 보려고 그녀의 죄 된 삶을 직시하게 하셨습니다(16~18절).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였습니다(19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로 인식한 그녀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쟁점이었던 예배의 장소에 관해 물었습니다(20절). 사마리아인들은 구약성경 중 모세오경만 받아들였고, 오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는 언약의 복이 선포될 산으로 하나님에 의해 지정된 그리스 산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신 11:29; 27:12).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 장소의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때가 왔는데, 그때는 바로 '지금'으로서,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21~24절).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지금 새 시대의 영적인 예배를 설명하는 바로 그가 메시아임을 알려셨고(26절),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28~29절).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태어날 때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관해 계시하는 말씀이나 혹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요 8:32, 36; 14:6). 따라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입니다.

» 기도 제목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⁶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⁷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
 러 오라 ⁸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
 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⁹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¹⁰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
 니 선지자로소이다 ¹¹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
 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¹² 예수께서 이르
 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
 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
 배할 때가 이르리라 ¹³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
 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¹⁴ 아버지
 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

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
 니라 ¹⁵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¹⁶ 여자가 이르되 메
 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
 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¹⁷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¹⁸ 이 때에 제자들
 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
 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
 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
 라 ¹⁹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
 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²⁰ 내가 행한 모든 일
 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
 도가 아니냐 하니 ²¹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
 수께로 오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수를 우물에서 얻는 것 같은 자연수로 오해했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한 음식을 육적인 음식으로 오해하였습니다(33절).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가 말한 양식이란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34절). 이어서 예수님은 임박한 풍성한 추수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추수기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인의 전도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39~42절)을 예고하며,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씀이 옳다고 하시며, 이 구원의 추수에 제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37~38절). 바로 그때 여인을 따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의 청함을 받아 그들과 더불어 이틀 동안 더 머무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고 믿게 되었습니다(39~42절).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시작된 추수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동네의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고 믿게 되는 데 그녀가 한 것은 그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영적 추수에 참여한 이 여인처럼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³³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⁴²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
 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³³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
 니 ³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
 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
 루는 이것이니라 ³⁵ 너희는 녁 달이 지나야 추
 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
 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³⁶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
 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³⁷ 그런즉 한 사람
 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

다 ³⁸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
 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
 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³⁹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
 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⁴⁰ 사마리아인들
 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하시매 ⁴¹ 예수의 말
 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⁴²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라 하였
 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표적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2:11), 이 두 번째 표적에서는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습니다(53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고향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었습니다(요 1:10~11).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고향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성을 띤 곳이 유대와 예루살렘이었고,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에 도착하셨습니다(43~45절). 본문에서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갈릴리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48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려고 하였지만(49절)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리라” 하고 명령하시자 태도를 바꾸고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시간과 그 아들이 살아난 시간이 같음을 기록하였습니다(52~53절). 즉, 말씀하신 시간과 치료된 시간이 일치한 것을 보이고 그것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신하는 예수님을 확고히 믿었을 뿐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53절).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갈릴리 사람들과 이 왕의 신하가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간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살아난 것을 체험하고 더욱 확고히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필요나 문제에 대해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⁴³이들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⁴⁴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⁴⁵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 이더라 ⁴⁶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⁴⁷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⁴⁸예수께서 이르

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⁴⁹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⁵⁰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⁵¹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⁵²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묻은즉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⁵³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⁵⁴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 목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본문에 기록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에서는 치료받은 병자의 믿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병자 치유 사건은 곧 묵상하게 될 요한복음 5장 19~29절, 곧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한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계셨던 예수님은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1절).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단에 있지만, 예루살렘이 산지에 위치해 있었고, 또 다윗 성으로서 우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연못을 방문했습니다(2절). 예수님은 이곳의 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특히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가 어떤 기적들을 행했는지도 모르며,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연못에 던져주기만을 바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7절). 예수님께서 도움을 제안하셨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기대한 그런 도움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은 즉시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8~9절).

예수님께서 굳이 이 사람을 택하여 치유한 사건을 통해 계시하고자 한 바는 무엇일까요? 인자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릴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여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 구원, 이적 등 모든 좋은 것이 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심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주여,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나이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²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³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낮게 됨이러라]⁵ 거기 서러운 데 해 된 병자가 있더라⁶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⁷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⁸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⁹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¹⁰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9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10절). 그 병자는 해방되었지만, 다른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은 걸림이 되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직접 치유하심으로써 그들의 규정을 깨뜨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고침 받은 그 사람은 누가 자기를 고쳐 주었는지 물랐습니다(13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발견하시고, 그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14절). 이 진술은 그 사람의 병이, 죄 때문에 야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규정의 위반에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기적은 옆으로 제쳐 놓았습니다(16절). 그들은 자기들의 권력이 위협을 받는다고 느꼈고 예수님에 대해 분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당국자들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자신을 핍박하자 “나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며 안식일에 일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17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함축하는 의미를 알았으니 곧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간주하는 것이었습니다(18절). 이에 더욱 놀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18절).

‘장로들의 유전’의 39개조 규정 중 마지막은 안식일에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구약 율법에 덧붙인 수많은 규정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관례적으로 행하는 일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의 경향을 지닌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실상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주님의 마음과 행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¹¹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¹²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
 되 ¹³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¹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
 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
 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
 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¹⁵ 그 사람이 유대인들

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¹⁶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
 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¹⁷ 예
 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
 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¹⁸ 유대
 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
 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
 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본문은 앞서 나온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과 관련하여 아들의 권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행하며, 아버지가 행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19절).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의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이유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여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20절). 아버지께서는 병을 고치는 일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니, 그 일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고 심판을 행하시는 아들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21~22절). 하나님께서 심판의 판결과 실행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22절). 그러므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23절). 그러면 21절에 언급된 “예수께서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할 때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영적인 부활의 결과로 주어지는 현재적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적인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미래적인 생명입니다. 24~25절은 영이 죽어 있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에서 영이 다시 사는 상태로 회복되는 현재적 생명을, 28~29절에서는 육체적 부활을 통한 생명을 언급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고,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29절), 요한복음 3장 20~21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불신자들이며, 선을 행하는 자는 신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한 권귀와 영예를 갖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믿는 것은 그분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능력과 권세를 무시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삶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즉시 시작됩니다. 그 순간에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고후 5:17).

» 기도 제목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¹⁹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²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²¹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²²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²³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

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²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²⁵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²⁶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²⁷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²⁸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²⁹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구약에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신 19:15). 구약시대 판결의 근거였을 뿐 아니라, 유대의 전 재판 과정이 그러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행사가 정당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자신의 증언 외에 또 다른 증언들을 진술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33절). 이는 “비취는 등불”과 같아서 일시적으로 좁은 범위에 빛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35절). 그러나 예수님은 빛 자체이시고, 온 세상을 비추십니다. 이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하는 그 역사”로서 예수님의 이적들을 가리킵니다(36절). 세 번째 증언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구약 계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그의 형상도, 그의 말씀도 자신들이 간직하고 있다고 자처하였지만, 즉 구약을 자신들은 믿는다고 하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실상은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란 것을 증명하였습니다(37~38절). 구약이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은 모순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였지만,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39~40절).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적인 열심(성경을 연구함도) 개인에게 영생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여 생명을 얻는 것도, 영적 유익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생명을 얻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요 1:4; 5:25; 14:6).

» 기도 제목

오늘 하루도 성경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³⁰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³¹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³²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³³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³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³⁵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³⁶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³⁷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³⁸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³⁹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⁴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 받은 아들로 증거하는 세 증언에(요 5:31~39)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44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그들이 간절히 구했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44절).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사랑했고, 집단의 인정과 동의에, 자신들이 누리는 권세와 영광에 서로 취해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거절의 깊은 뿌리가 무엇인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이었습니다(42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는 인물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그들을 오히려 고발한다고 말씀하시며(45절), 유대인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믿었을 것이니(46절) 그들의 실상은 모세도,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 것이라고 규명하셨습니다(47절).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 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 그들은 신성 모독죄란 명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문제를 그들의 방식대로 사용하셔서 전 세계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됨입니다(약 4:4).

» 기도 제목

나의 평생에 주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⁴¹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⁴²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⁴³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⁴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

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⁴⁵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⁴⁶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⁴⁷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성경공부 영어본문말씀

4월 1일 토요일

Luke 23:26~43

- 26 As they led him away, they seized Simon from Cyrene, who was on his way in from the country, and put the cross on him and made him carry it behind Jesus.
- 27 A large number of people followed him, including women who mourned and wailed for him.
- 28 Jesus turned and said to them, "Daughters of Jerusalem, do not weep for me; weep for yourselves and for your children.
- 29 For the time will come when you will say, 'Blessed are the barren women, the wombs that never bore and the breasts that never nursed!'
- 30 Then 'they will say to the mountains, 'Fall on us!' and to the hills, 'Cover us!'
- 31 For if men do these things when the tree is green, what will happen when it is dry?"
- 32 Two other men, both criminals, were also led out with him to be executed.
- 33 When they came to the place called the Skull, there they crucified him, along with the criminals--one on his right, the other on his left.
- 34 Jesus sai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And they divided up his clothes by casting lots.
- 35 The people stood watching, and the rulers even sneered at him. They said, "He saved others; let him save himself if he is the Christ of God, the Chosen One."
- 36 The soldiers also came up and mocked him. They offered him wine vinegar
- 37 and said, "If you are the king of the Jews, save yourself."
- 38 There was a written notice above him, which read: **THIS IS THE KING OF THE JEWS.**
- 39 One of the criminals who hung there hurled insults at him: "Aren't you the Christ? Save yourself and us!"
- 40 But the other criminal rebuked him. "Don't you fear God," he said, "since you are under the same sentence?"
- 41 We are punished justly, for we are getting what our deeds deserve.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
- 42 Then he sai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 43 Jesus answered him,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4월 2일 주일

Luke 23:44~56

- 44 It was now about the sixth hour, and darkness came over the whole land until the ninth hour,
- 45 for the sun stopped shining. And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 46 Jesus called out with a loud voice,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When he had said this, he breathed his last.
- 47 The centurion, seeing what had happened, praised God and said, "Surely this was a righteous man."
- 48 When all the people who had gathered to witness this sight saw what took place, they beat their breasts and went away.
- 49 But all those who knew him, including the women who had followed him from Galilee, stood at a distance, watching these things.
- 50 Now there was a man named Joseph, a member of the Council, a good and upright man,
- 51 who had not consented to their decision and action. He came from the Judean town of Arimathea and he was waiting for the kingdom of God.
- 52 Going to Pilate, he asked for Jesus' body.
- 53 Then he took it down, wrapped it in linen cloth and placed it in a tomb cut in the rock, one in which no one had yet been laid.
- 54 It was Preparation Day, and the Sabbath was about to begin.
- 55 The women who had come with Jesus from Galilee followed Joseph and saw the tomb and how his body was laid in it.
- 56 Then they went home and prepared spices and perfumes. But they rested on the Sabbath in obedience to the commandment.

4월 3일 월요일

Luke 24:1~12

- 1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very early in the morning, the women took the spices they had prepared and went to the tomb.
- 2 They found the stone rolled away from the tomb,
- 3 but when they entered, they did not find the

body of the Lord Jesus.

- 4 While they were wondering about this, suddenly two men in clothes that gleamed like lightning stood beside them.
- 5 In their fright the women bowed down with their faces to the ground, but the men said to them, "Why do you look for the living among the dead?"
- 6 He is not here; he has risen! Remember how he told you, while he was still with you in Galilee:
- 7 'The Son of Man must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sinful men, be crucified and on the third day be raised again.'
- 8 Then they remembered his words.
- 9 When they came back from the tomb, they told all these things to the Eleven and to all the others.
- 10 It was Mary Magdalene, Joanna,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the others with them who told this to the apostles.
- 11 But they did not believe the women, because their words seemed to them like nonsense.
- 12 Peter, however, got up and ran to the tomb. Bending over, he saw the strips of linen lying by themselves, and he went away, wondering to himself what had happened.

4월 4일 화요일

Luke 24:13~35

- 13 Now that same day two of them were going to a village called Emmaus, about seven miles from Jerusalem.
- 14 They were talking with each other about everything that had happened.
- 15 As they talked and discussed these things with each other, Jesus himself came up and walked along with them;
- 16 but they were kept from recognizing him.
- 17 He asked them, "What are you discussing together as you walk along?" They stood still, their faces downcast.
- 18 One of them, named Cleopas, asked him, "Are you only a visitor to Jerusalem and do not know the things that have happened there in these days?"
- 19 "What things?" he asked. "About Jesus of Nazareth," they replied. "He was a prophet, powerful in word and deed before God and

all the people.

- 20 The chief priests and our rulers handed him over to be sentenced to death, and they crucified him;
- 21 but we had hoped that he was the one who was going to redeem Israel. And what is more, it is the third day since all this took place.
- 22 In addition, some of our women amazed us. They went to the tomb early this morning
- 23 but didn't find his body. They came and told us that they had seen a vision of angels, who said he was alive.
- 24 Then some of our companions went to the tomb and found it just as the women had said, but him they did not see."
- 25 He said to them, "How foolish you are, and how slow of heart to believe all that the prophets have spoken!
- 26 Did not the Christ have to suffer these things and then enter his glory?"
- 27 And beginning with Moses and all the Prophets, he explained to them what was said in all the Scriptures concerning himself.
- 28 As they approached the village to which they were going, Jesus acted as if he were going farther.
- 29 But they urged him strongly, "Stay with us, for it is nearly evening; the day is almost over." So he went in to stay with them.
- 30 When he was at the table with them, he took bread, gave thanks, broke it and began to give it to them.
- 31 Then their eyes were opened and they recognized him, and he disappeared from their sight.
- 32 They asked each other, "Were not our hearts burning within us while he talked with us on the road and opened the Scriptures to us?"
- 33 They got up and returned at once to Jerusalem. There they found the Eleven and those with them, assembled together
- 34 and saying, "It is true! The Lord has risen and has appeared to Simon."
- 35 Then the two told what had happened on the way, and how Jesus was recognized by them when he broke the bread.

4월 5일 수요일

Luke 24:36~53

- 36 While they were still talking about this, Jesus himself stood among them and said to them, "Peace be with you."
- 37 They were startled and frightened, thinking they saw a ghost.
- 38 He said to them, "Why are you troubled, and why do doubts rise in your minds?"
- 39 Look at my hands and my feet. It is I myself! Touch me and see; a ghost does not have flesh and bones, as you see I have."
- 40 When he had said this, he showed them his hands and feet.
- 41 And while they still did not believe it because of joy and amazement, he asked them, "Do you have anything here to eat?"
- 42 They gave him a piece of broiled fish,
- 43 and he took it and ate it in their presence.
- 44 He said to them, "This is what I told you while I was still with you: Everything must be fulfilled that is written about me in the Law of Moses, the Prophets and the Psalms."
- 45 Then he opened their minds so they could understand the Scriptures.
- 46 He told them, "This is what is written: The Christ will suffer and rise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 47 and repentance and forgiveness of sins will be preached in his name to all nations, beginning at Jerusalem.
- 48 You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 49 I am going to send you what my Father has promised; but stay in the city until you have been clothed with power from on high."
- 50 When he had led them out to the vicinity of Bethany, he lifted up his hands and blessed them.
- 51 While he was blessing them, he left them and was taken up into heaven.
- 52 Then they worshiped him and returned to Jerusalem with great joy.
- 53 And they stayed continually at the temple, praising God.

4월 6일 목요일

John 1:1~8

- 1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 2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 3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 4 In him was life, and that life was the light of men.
- 5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but the darkness has not understood it.
- 6 There came a man who was sent from God; his name was John.
- 7 He came as a witness to testify concerning that light, so that through him all men might believe.
- 8 He himself was not the light; he came only as a witness to the light.

4월 7일 금요일

John 1:9~18

- 9 The true light that gives light to every man was coming into the world.
- 10 He was in the world, and though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 11 He came to that which was his own, but his own did not receive him.
- 12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 13 children born not of natural descent, nor of human decision or a husband's will, but born of God.
- 14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 15 John testifies concerning him. He cries out, saying, "This was he of whom I said, 'He who comes after me has surpassed me because he was before me.'"
- 16 From the fullness of his grace we have all received one blessing after another.
- 17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 18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God the One and Only, who is at the Father's side, has made him known.

4월 8일 토요일

John 1:19~28

- 19 Now this was John's testimony when the Jews of Jerusalem sent priests and Levites to ask him who he was.
- 20 He did not fail to confess, but confessed freely, "I am not the Christ."
- 21 They asked him, "Then who are you? Are you Elijah?" He said, "I am not." "Are you the Prophet?" He answered, "No."
- 22 Finally they said, "Who are you? Give us an answer to take back to those who sent us. What do you say about yourself?"
- 23 John replied in the words of Isaiah the prophet, "I am the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Make straight the way for the Lord.'"
- 24 Now some Pharisees who had been sent
- 25 questioned him, "Why then do you baptize if you are not the Christ, nor Elijah, nor the Prophet?"
- 26 "I baptize with water," John replied, "but among you stands one you do not know.
- 27 He is the one who comes after me, the thongs of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untie."
- 28 This all happened at Bethany on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where John was baptizing.

4월 9일 주일

John 1:29~34

- 29 The next day John saw Jesus coming toward him and said,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 30 This is the one I meant when I said, 'A man who comes after me has surpassed me because he was before me.'
- 31 I myself did not know him, but the reason I came baptizing with water was that he might be revealed to Israel."
- 32 Then John gave this testimony: "I saw the Spirit come down from heaven as a dove and remain on him.
- 33 I would not have known him, except that the one who sent me to baptize with water told me, 'The man on whom you see the Spirit come down and remain is he who will baptize with the Holy Spirit.'
- 34 I have seen and I testify that this is the Son of God."

4월 10일 월요일

Mark 14:22~31

- 22 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gave thanks and broke it, and gave it to his disciples, saying, "Take it; this is my body."
- 23 Then he took the cup, gave thanks and offered it to them, and they all drank from it.
- 24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he said to them.
- 25 "I tell you the truth, I will not drink again of the fruit of the vine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anew in the kingdom of God."
- 26 When they had sung a hymn, they went out to the Mount of Olives.
- 27 "You will all fall away," Jesus told them, "for it is written: 'I will strike the shepherd, and the sheep will be scattered.'"
- 28 But after I have risen, I will go ahead of you into Galilee."
- 29 Peter declared, "Even if all fall away, I will not."
- 30 "I tell you the truth," Jesus answered, "today--yes, tonight--before the rooster crows twice you yourself will disown me three times."
- 31 But Peter insisted emphatically, "Even if I have to die with you, I will never disown you." And all the others said the same.

4월 11일 화요일

Mark 14:32~42

- 32 They went to a place called Gethsemane, and Jesus said to his disciples, "Sit here while I pray."
- 33 He took Peter, James and John along with him, and he began to be deeply distressed and troubled.
- 34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he said to them. "Stay here and keep watch."
- 35 Going a little farther, he fell to the ground and prayed that if possible the hour might pass from him.
- 36 "Abba, Father," he said, "everything is possible for you. Take this cup from me. Yet not what I will, but what you will."
- 37 Then he returned to his disciples and found them sleeping. "Simon," he said to Peter, "are you asleep? Could you not keep watch for one hour?"
- 38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body is weak."

39 Once more he went away and prayed the same thing.

40 When he came back, he again found them sleeping, because their eyes were heavy. They did not know what to say to him.

41 Returning the third time, he said to them, "Are you still sleeping and resting? Enough! The hour has come. Look, the Son of Man is betrayed into the hands of sinners.

42 Rise! Let us go! Here comes my betrayer!"

4월 12일 수요일

John 18:28~40

28 Then the Jews led Jesus from Caiaphas to the palace of the Roman governor. By now it was early morning, and to avoid ceremonial uncleanness the Jews did not enter the palace; they wanted to be able to eat the Passover.

29 So Pilate came out to them and asked, "What charges are you bringing against this man?"

30 "If he were not a criminal," they replied, "we would not have handed him over to you."

31 Pilate said, "Take him yourselves and judge him by your own law." "But we have no right to execute anyone," the Jews objected.

32 This happened so that the words Jesus had spoken indicating the kind of death he was going to die would be fulfilled.

33 Pilate then went back inside the palace, summoned Jesus and asked him,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34 "Is that your own idea," Jesus asked, "or did others talk to you about me?"

35 "Am I a Jew?" Pilate replied. "It was your people and your chief priests who handed you over to me. What is it you have done?"

36 Jesus said,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If it were, my servants would fight to prevent my arrest by the Jews. But now my kingdom is from another place."

37 "You are a king, then!" said Pilate. Jesus answered, "You are right in saying I am a king. In fact, for this reason I was born, and for this I came into the world, to testify to the truth. Everyone on the side of truth listens to me."

38 "What is truth?" Pilate asked. With this he went out again to the Jews and said, "I find no basis for a charge against him.

39 But it is your custom for me to release to you one prisoner at the time of the Passover. Do you want me to release 'the king of the Jews'?"

40 They shouted back, "No, not him! Give us Barabbas!" Now Barabbas had taken part in a rebellion.

4월 13일 목요일

John 19:17~27

17 Carrying his own cross, he went out to the place of the Skull (which in Aramaic is called Golgotha).

18 Here they crucified him, and with him two others--one on each side and Jesus in the middle.

19 Pilate had a notice prepared and fastened to the cross. It read: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THE JEWS.

20 Many of the Jews read this sign, for the place where Jesus was crucified was near the city, and the sign was written in Aramaic, Latin and Greek.

21 The chief priests of the Jews protested to Pilate, "Do not write 'The King of the Jews,' but that this man claimed to be king of the Jews."

22 Pilate answered, "What I have written, I have written."

23 When the soldiers crucified Jesus, they took his clothes, dividing them into four shares, one for each of them, with the undergarment remaining. This garment was seamless, woven in one piece from top to bottom.

24 "Let's not tear it," they said to one another. "Let's decide by lot who will get it." This happened that the scripture might be fulfilled which said, "They divided my garments among them and cast lots for my clothing." So this is what the soldiers did.

25 Near the cross of Jesus stood his mother, his mother's sister, Mary the wife of Clopas, and Mary Magdalene.

26 When Jesus saw his mother there, and the disciple whom he loved standing nearby, he said to his mother, "Dear woman, here is your son,"

27 and to the disciple, "Here is your mother."
From that time on, this disciple took her into his home.

4월 14일 금요일

John 19:28~37

28 Later, knowing that all was now completed, and so that the Scripture would be fulfilled, Jesus said, "I am thirsty."

29 A jar of wine vinegar was there, so they soaked a sponge in it, put the sponge on a stalk of the hyssop plant, and lifted it to Jesus' lips.

30 When he had received the drink, Jesus said, "It is finished." With that,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his spirit.

31 Now it was the day of Preparation, and the next day was to be a special Sabbath. Because the Jews did not want the bodies left on the crosses during the Sabbath, they asked Pilate to have the legs broken and the bodies taken down.

32 The soldiers therefore came and broke the legs of the first man who had been crucified with Jesus, and then those of the other.

33 But when they came to Jesus and found that he was already dead, they did not break his legs.

34 Instead, one of the soldiers pierced Jesus' side with a spear, bringing a sudden flow of blood and water.

35 The man who saw it has given testimony, and his testimony is true. He knows that he tells the truth, and he testifies so that you also may believe.

36 These things happened so that the scripture would be fulfilled: "Not one of his bones will be broken,"

37 and, as another scripture says, "They will look on the one they have pierced."

4월 15일 토요일

Luke 23:50~56

50 Now there was a man named Joseph, a member of the Council, a good and upright man,

51 who had not consented to their decision and action. He came from the Judean town of Arimathea and he was waiting for the kingdom of God.

52 Going to Pilate, he asked for Jesus' body.

53 Then he took it down, wrapped it in linen cloth and placed it in a tomb cut in the rock, one in which no one had yet been laid.

54 It was Preparation Day, and the Sabbath was about to begin.

55 The women who had come with Jesus from Galilee followed Joseph and saw the tomb and how his body was laid in it.

56 Then they went home and prepared spices and perfumes. But they rested on the Sabbath in obedience to the commandment.

4월 16일 주일

Matthew 28:1~10

1 After the Sabbath, at dawn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went to look at the tomb.

2 There was a violent earthquake, for an angel of the Lord came down from heaven and, going to the tomb, rolled back the stone and sat on it.

3 His appearance was like lightning, and his clothes were white as snow.

4 The guards were so afraid of him that they shook and became like dead men.

5 The angel said to the women, "Do not be afraid, for I know that you are looking for Jesus, who was crucified.

6 He is not here; he has risen, just as he said. Come and see the place where he lay.

7 Then go quickly and tell his disciples: 'He has risen from the dead and is going ahead of you in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Now I have told you."

8 So the women hurried away from the tomb, afraid yet filled with joy, and ran to tell his disciples.

9 Suddenly Jesus met them. "Greetings," he said. They came to him, clasped his feet and worshiped him.

10 Then Jesus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Go and tell my brothers to go to Galilee; there they will see me."

4월 17일 월요일

John 2:1~12

- 1 n the third day a wedding took place at Cana in Galilee. Jesus' mother was there,
- 2 and Jesus and his disciples had also been invited to the wedding.
- 3 When the wine was gone, Jesus' mother said to him, "They have no more wine."
- 4 "Dear woman, why do you involve me?" Jesus replied, "My time has not yet come."
- 5 His mother said to the servants, "Do whatever he tells you."
- 6 Nearby stood six stone water jars, the kind used by the Jews for ceremonial washing, each holding from twenty to thirty gallons.
- 7 Jesus said to the servants, "Fill the jars with water"; so they filled them to the brim.
- 8 Then he told them, "Now draw some out and take it to the master of the banquet." They did so,
- 9 and the master of the banquet tasted the water that had been turned into wine. He did not realize where it had come from, though the servants who had drawn the water knew. Then he called the bridegroom aside
- 10 and said, "Everyone brings out the choice wine first and then the cheaper wine after the guests have had too much to drink; but you have saved the best till now."
- 11 This, the first of his miraculous signs, Jesus performed in Cana of Galilee. He thus revealed his glory, and his disciples put their faith in him.
- 12 After this he went down to Capernaum with his mother and brothers and his disciples. There they stayed for a few days.

4월 18일 화요일

John 2:13~25

- 13 When it was almost time for the Jewish Passover, Jesus went up to Jerusalem.
- 14 In the temple courts he found men selling cattle, sheep and doves, and others sitting at tables exchanging money.
- 15 So he made a whip out of cords, and drove all from the temple area, both sheep and cattle; he scattered the coins of the money changers and overturned their tables.
- 16 To those who sold doves he said, "Get these out of here! How dare you turn my

Father's house into a market!"

- 17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it is written: "Zeal for your house will consume me."
- 18 Then the Jews demanded of him, "What miraculous sign can you show us to prove your authority to do all this?"
- 19 Jesus answered them, "Destroy this temple, and I will raise it again in three days."
- 20 The Jews replied, "It has taken forty-six years to build this temple, and you are going to raise it in three days?"
- 21 But the temple he had spoken of was his body.
- 22 After he was raised from the dead, his disciples recalled what he had said. Then they believed the Scripture and the words that Jesus had spoken.
- 23 Now while he was in Jerusalem at the Passover Feast, many people saw the miraculous signs he was doing and believed in his name.
- 24 But Jesus would not entrust himself to them, for he knew all men.
- 25 He did not need man's testimony about man, for he knew what was in a man.

4월 19일 수요일

John 3:1~8

- 1 Now there was a man of the Pharisees named Nicodemus, a member of the Jewish ruling council.
- 2 He came to Jesus at night and said, "Rabbi, we know you are a teacher who has come from God. For no one could perform the miraculous signs you are doing if God were not with him."
- 3 In reply Jesus declared, "I tell you the truth,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again."
- 4 "How can a man be born when he is old?" Nicodemus asked. "Surely he cannot enter a second time into his mother's womb to be born!"
- 5 Jesus answered, "I tell you the truth,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 6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 7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 8 The wind blows wherever it pleases. You

hear its sound, but you cannot tell where it comes from or where it is going. So it is with everyone born of the Spirit."

4월 20일 목요일

John 3:9~21

- 9 "How can this be?" Nicodemus asked.
10 "You are Israel's teacher," said Jesus, "and do you not understand these things?
11 I tell you the truth, we speak of what we know, and we testify to what we have seen, but still you people do not accept our testimony.
12 I have spoken to you of earthly things and you do not believe; how then will you believe if I speak of heavenly things?
13 No one has ever gone into heaven except the one who came from heaven--the Son of Man.
14 Just as Moses lifted up the snake in the desert, so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15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may have eternal life.
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17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18 Whoever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stand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name of God's one and only Son.
19 This is the verdict: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but men loved darkness instead of light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20 Everyone who does evil hates the light, and will not come into the light for fear that his deeds will be exposed.
21 But whoever lives by the truth comes into the light, so that it may be seen plainly that what he has done has been done through God."

4월 21일 금요일

John 3:22~36

- 22 After this, Jesus and his disciples went out into the Judean countryside, where he spent some time with them, and baptized.
23 Now John also was baptizing at Aenon near

Salim, because there was plenty of water, and people were constantly coming to be baptized.

- 24 (This was before John was put in prison.)
25 An argument developed between some of John's disciples and a certain Jew over the matter of ceremonial washing.
26 They came to John and said to him, "Rabbi, that man who was with you on the other side of the Jordan--the one you testified about--well, he is baptizing, and everyone is going to him."
27 To this John replied, "A man can receive only what is given him from heaven.
28 You yourselves can testify that I said, 'I am not the Christ but am sent ahead of him.'
29 The bride belongs to the bridegroom. The friend who attends the bridegroom waits and listens for him, and is full of joy when he hears the bridegroom's voice. That joy is mine, and it is now complete.
30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31 "The one who comes from above is above all; the one who is from the earth belongs to the earth, and speaks as one from the earth. The one who comes from heaven is above all.
32 He testifies to what he has seen and heard, but no one accepts his testimony.
33 The man who has accepted it has certified that God is truthful.
34 For the one whom God has sent speaks the words of God, for God gives the Spirit without limit.
35 The Father loves the Son and has placed everything in his hands.
36 Whoever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but whoever rejects the Son will not see life, for God's wrath remains on him."

4월 22일 토요일

John 4:1~14

- 1 The Pharisees heard that Jesus was gaining and baptizing more disciples than John, 2 although in fact it was not Jesus who baptized, but his disciples.
3 When the Lord learned of this, he left Judea and went back once more to Galilee.
4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5 So he came to a town in Samaria called

Sychar, near the plot of ground Jacob had given to his son Joseph.

- 6 Jacob's well was there, and Jesus, tired as he was from the journey, sat down by the well. It was about the sixth hour.
- 7 When a Samaritan woman came to draw water, Jesus said to her, "Will you give me a drink?"
- 8 (His disciples had gone into the town to buy food.)
- 9 The Samaritan woman said to him, "You are a Jew and I am a Samaritan woman. How can you ask me for a drink?" (For Jews do not associate with Samaritans.)
- 10 Jesus answered her, "If you knew the gift of God and who it is that asks you for a drink, you would have asked him and he would have given you living water."
- 11 "Sir," the woman said, "you have nothing to draw with and the well is deep. Where can you get this living water?"
- 12 Are you greater than our father Jacob, who gave us the well and drank from it himself, as did also his sons and his flocks and herds?"
- 13 Jesus answered, "Everyone who drinks this water will be thirsty again,
- 14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Indeed, the water I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4월 23일 주일

John 4:15~30

- 15 The woman said to him, "Sir, give me this water so that I won't get thirsty and have to keep coming here to draw water."
- 16 He told her, "Go, call your husband and come back."
- 17 "I have no husband," she replied. Jesus said to her, "You are right when you say you have no husband."
- 18 The fact is, you have had five husbands, and the man you now have is not your husband. What you have just said is quite true."
- 19 "Sir," the woman said, "I can see that you are a prophet."
- 20 Our fathers worshiped on this mountain, but you Jews claim that the place where we must worship is in Jerusalem."
- 21 Jesus declared, "Believe me, woman, a time

is coming when you will worship the Father neither on this mountain nor in Jerusalem.

- 22 You Samaritans worship what you do not know; we worship what we do know, for salvation is from the Jews.
- 23 Yet a time is coming and has now come when the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for they are the kind of worshipers the Father seeks.
- 24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 25 The woman said, "I know that Messiah" (called Christ) "is coming. When he comes, he will explain everything to us."
- 26 Then Jesus declared, "I who speak to you am he."
- 27 Just then his disciples returned and were surprised to find him talking with a woman. But no one asked, "What do you want?" or "Why are you talking with her?"
- 28 Then, leaving her water jar, the woman went back to the town and said to the people,
- 29 "Come, see a man who told me everything I ever did. Could this be the Christ?"
- 30 They came out of the town and made their way toward him.

4월 24일 월요일

John 4:31~42

- 31 Meanwhile his disciples urged him, "Rabbi, eat something."
- 32 But he said to them, "I have food to eat that you know nothing about."
- 33 Then his disciples said to each other, "Could someone have brought him food?"
- 34 "My food," said Jesus, "is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to finish his work."
- 35 Do you not say, 'Four months more and then the harvest?' I tell you, open your eyes and look at the fields! They are ripe for harvest."
- 36 Even now the reaper draws his wages, even now he harvests the crop for eternal life, so that the sower and the reaper may be glad together."
- 37 Thus the saying 'One sows and another reaps' is true."
- 38 I sent you to reap what you have not worked for. Others have done the hard work, and you have reaped the benefits of their labor."
- 39 Many of the Samaritans from that town

believed in him because of the woman's testimony, "He told me everything I ever did."

40 So when the Samaritans came to him, they urged him to stay with them, and he stayed two days.

41 And because of his words many more became believers.

42 They said to the woman, "We no longer believe just because of what you said; now we have heard for ourselves, and we know that this man really is the Savior of the world."

4월 25일 화요일

John 4:43~54

43 After the two days he left for Galilee.

44 (Now Jesus himself had pointed out that a prophet has no honor in his own country.)

45 When he arrived in Galilee, the Galileans welcomed him. They had seen all that he had done in Jerusalem at the Passover Feast, for they also had been there.

46 Once more he visited Cana in Galilee, where he had turned the water into wine. And there was a certain royal official whose son lay sick at Capernaum.

47 When this man heard that Jesus had arrived in Galilee from Judea, he went to him and begged him to come and heal his son, who was close to death.

48 "Unless you people see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Jesus told him, "you will never believe."

49 The royal official said, "Sir, come down before my child dies."

50 Jesus replied, "You may go. Your son will live." The man took Jesus at his word and departed.

51 While he was still on the way, his servants met him with the news that his boy was living.

52 When he inquired as to the time when his son got better, they said to him, "The fever left him yesterday at the seventh hour."

53 Then the father realized that this was the exact time at which Jesus had said to him, "Your son will live." So he and all his household believed.

54 This was the second miraculous sign that Jesus performed, having come from Judea

to Galilee.

4월 26일 수요일

John 5:1~10

1 Some time later, Jesus went up to Jerusalem for a feast of the Jews.

2 Now there is in Jerusalem near the Sheep Gate a pool, which in Aramaic is called Bethesda and which is surrounded by five covered colonnades.

3 Here a great number of disabled people used to lie--the blind, the lame, the paralyzed.

4

5 One who was there had been an invalid for thirty-eight years.

6 When Jesus saw him lying there and learned that he had been in this condition for a long time, he asked him, "Do you want to get well?"

7 "Sir," the invalid replied, "I have no one to help me into the pool when the water is stirred. While I am trying to get in, someone else goes down ahead of me."

8 Then Jesus said to him,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9 At once the man was cured; he picked up his mat and walked. The day on which this took place was a Sabbath,

10 and so the Jews said to the man who had been healed, "It is the Sabbath; the law forbids you to carry your mat."

4월 27일 목요일

John 5:11~18

11 But he replied, "The man who made me well said to me, 'Pick up your mat and walk.'"

12 So they asked him, "Who is this fellow who told you to pick it up and walk?"

13 The man who was healed had no idea who it was, for Jesus had slipped away into the crowd that was there.

14 Later Jesus found him at the temple and said to him, "See, you are well again. Stop sinning or something worse may happen to you."

15 The man went away and told the Jews that it was Jesus who had made him well.

16 So, because Jesus was doing these things on the Sabbath, the Jews persecuted him.

17 Jesus said to them,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to this very day, and I, too, am working."

- 18 For this reason the Jews tried all the harder to kill him; not only was he breaking the Sabbath, but he was even calling God his own Father, making himself equal with God.

4월 28일 금요일
John 5:19~29

- 19 Jesus gave them this answer: "I tell you the truth, the Son can do nothing by himself; he can do only what he sees his Father doing, because whatever the Father does the Son also does.
20 For the Father loves the Son and shows him all he does. Yes, to your amazement he will show him even greater things than these.
21 For just as the Father raises the dead and gives them life, even so the Son gives life to whom he is pleased to give it.
22 Moreover, the Father judges no one, but has entrusted all judgment to the Son,
23 that all may honor the Son just as they honor the Father. He who does not honor the Son does not honor the Father, who sent him.
24 "I tell you the truth,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will not be condemned;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25 I tell you the truth, a time is coming and has now come when the dead will hear the voice of the Son of God and those who hear will live.
26 For as the Father has life in himself, so he has granted the Son to have life in himself.
27 And he has given him authority to judge because he is the Son of Man.
28 "Do not be amazed at this, for a time is coming when all who are in their graves will hear his voice
29 and come out--those who have done good will rise to live, and those who have done evil will rise to be condemned.

4월 29일 토요일
John 5:30~40

- 30 By myself I can do nothing; I judge only as I hear, and my judgment is just, for I seek not to please myself but him who sent me.
31 "If I testify about myself, my testimony is not valid.
32 There is another who testifies in my favor, and I know that his testimony about me is valid.
33 "You have sent to John and he has testified to the truth.
34 Not that I accept human testimony; but I mention it that you may be saved.
35 John was a lamp that burned and gave light, and you chose for a time to enjoy his light.
36 "I have testimony weightier than that of John. For the very work that the Father has given me to finish, and which I am doing, testifies that the Father has sent me.
37 And the Father who sent me has himself testified concerning me. You have never heard his voice nor seen his form,
38 nor does his word dwell in you, for you do not believe the one he sent.
39 You diligently study the Scriptures because you think that by them you possess eternal life. These are the Scriptures that testify about me,
40 yet you refuse to come to me to have life.

4월 30일 주일
John 5:41~47

- 41 "I do not accept praise from men,
42 but I know you. I know that you do not have the love of God in your hearts.
43 I have come in my Father's name, and you do not accept me; but if someone else comes in his own name, you will accept him.
44 How can you believe if you accept praise from one another, yet make no effort to obtain the praise that comes from the only God?
45 "But do not think I will accuse you before the Father. Your accuser is Moses, on whom your hopes are set.
46 If you believed Moses, you would believe me, for he wrote about me.
47 But since you do not believe what he wrote, how are you going to believe what I say?"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

이사야 44:4

충현의 만나 2017년 4월

Copyright© 2017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편집인 | 권명옥, 집필진 | 최영민 강성은 박지혜

발행처 | 충현교회 교육훈련원(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7길 40(역삼동) 전화 552-8200)(비매품)